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일상적 장면의 사물화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Ceramics of Objectification  
of Daily Scenes

2021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박진선

일상적 장면의 사물화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Ceramics of Objectification  
of Daily Sce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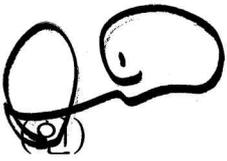
지도교수 이명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박진선

박진선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심사위원장 김재홍   
심사위원 김대영   
심사위원 이명아 

# 목 차

요 약 .....	i
표 목 차 .....	ii
도 목 차 .....	ii
작품목차 .....	iii
<b>I. 서 론 .....</b>	<b>1</b>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b>II. 이론적 배경 .....</b>	<b>4</b>
1. 일상에 대한 일반적 고찰 .....	4
1) 일상의 개념과 특징 .....	4
2) 일상의 현대적 의미 .....	5
3) 일상적 장면의 의미 .....	5
2. 사물에 대한 일반적 고찰 .....	7
1) 사물의 개념과 특징 .....	7
2) 사물과 인식 .....	7
3. 일상과 사물에 관련한 작품사례연구 .....	9
<b>III. 작품제작 및 해설 .....</b>	<b>14</b>
1. 작품계획 .....	14
2. 제작과정 .....	15
3. 작품해설 .....	27
<b>IV. 결 론 .....</b>	<b>44</b>
참고문헌 .....	45
영문초록(Abstract) .....	47

## 요 약

제 목 : 일상적 장면의 사물화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사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감각을 통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동시에 물질 과잉 사회에서 사물은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어 부유물처럼 치부되며 인간은 사물의 본질을 진정으로 향유하기 어려워진다. 사물과 개인의 관계성의 약화는 존재와 행위에 대한 의미 또한 잃어버리기 쉽다.

본 연구는 일상적 장면의 사물화를 통해 연구자 개인이 일상에서 사물과 가지는 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관점을 조형적 언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일상적 장면들이 자아내는 현존성과 아우라의 힘을 연구하고 장면들을 통해 생성되는 감정과 정서를 시각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잃어버리기 쉬운 일상의 가치와 사물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일상을 둘러싼 사물의 의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적 장면들에서 조형성을 도출하고 도자조형물로서 새로운 사물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며 그것들의 구성을 목표로 사물과 연구자의 관계 방식을 제안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일상과 사물의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인간은 늘 사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형성하는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작품 사례 연구를 통해 인간과 일상의 사물의 상호작용의 조형적 표현을 알아본다.

작품 제작 및 해설에서는 작품 계획, 작품 제작 과정, 작품 해설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작품 계획에 입각하여 제작 과정에는 일상적 장면의 포착과 드로잉을 통한 형태 도출을 설명하였고, 소지와 유약의 사용을 서술하였다. 작품 해설에서는 전반적인 연구과정의 의의와 조형적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일상적 장면과 사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일상의 장면을 바라보는 본 연구자의 관점을 도자라는 매체를 통해 사물로서 환원된 조형언어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자 조형 또한 하나의 사물이라는 관점에서 일상의 사물이 재정의된 사물을 잉태하는 과정을 가시화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이 일상의 사물에 대한 관조와 감상은 조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형적 요소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상의 사물과의 관계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제시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표 목 차

<표 1> 드로잉 전개 .....	18
<표 2> 색상별 안료 함유량에 따른 발색 테스트 .....	23
<표 3> 소성 과정 .....	24
<표 4> 모델링을 통한 구성 .....	25

## 도 목 차

[도 1] Paul Cézanne <사과>, 1878 .....	9
[도 2] Paul Cézanne <사과바구니가 있는 정물>, 1895 .....	9
[도 3] Giorgio Morandi <Natura morta>, 1946 .....	10
[도 4] Giorgio Morandi <Natura morta>, 1956 .....	10
[도 5] Rose Wylie <Six Hullo Girls>, 2017 .....	10
[도 6] Rose Wylie <Interview>, 2012 .....	10
[도 7] Peter Doig <Red Boat (Imaginary Boys)>, 2004 .....	11
[도 8] Peter Doig <house of flowers (see you there)>, 2007 .....	11
[도 9] Rachel Whiteread <Untitled (Domestic)>, 2002 .....	12
[도 10] Rachel Whiteread <Untitled(Library)>, 1999 .....	12
[도 11] Ron Nagle <Kingsford Special>, 2013 .....	13
[도 12] Ron Nagle <Fiestasiesta>, 2013 .....	13
[도 13] 사진을 통한 일상의 수집 .....	16
[도 14] 드로잉 .....	20
[도 15] 성형 .....	21
[도 16] 성형 .....	21
[도 17] 텍스처 1 .....	21
[도 18] 텍스처 2 .....	21
[도 19] 텍스처 3 .....	21

## 작품목차

[작품 1] Objects composition 1 .....	28
[작품 2] Objects composition 2 .....	29
[작품 3] Objects composition 3 .....	30
[작품 4] Objects composition 4 .....	31
[작품 5] Objects composition 5 .....	32
[작품 6] Objects composition 6 .....	33
[작품 7] Objects composition 7 .....	34
[작품 8] Objects composition 8 .....	35
[작품 9] Objects composition 9 .....	36
[작품 10] Objects composition 10 .....	37
[작품 11] Objects composition 11 .....	38
[작품 12] Objects composition 12 .....	39
[작품 13] Objects composition 13 .....	40
[작품 14] Objects composition 14 .....	41
[작품 15] Objects composition 15 .....	42
[전시전경] .....	43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상은 우리의 삶의 장소이고 삶의 시간이며, 삶의 통로이다.’<sup>1)</sup> 즉, 일상은 삶의 작은 단위이다. 지나치고 흘러보내기 십상이지만 일상은 한 개인의 삶을 이루는 세포와 같다. 일상이라는 삶의 통로를 지나면서 개인은 마주치는 무수한 장면들과 사물들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 사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감각을 통한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사물들은 인간의 내면을 비춰준다. 무엇인가를 비춘다는 점에서 거울이다. 사물은 우리 내면의 본성을 비추고, 그것의 선택과 체험 시간으로 이루어진 문화에 대해 말을 한다.’<sup>2)</sup> 즉, 일상에서 사물과 교류하고 경험하는 순간들을 통하여 한 사람의 정서와 내면이 드러나고 생성되며 변화한다고 말한다.

한 세기 이전부터 프랑스의 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현대사회의 모습은 “현존하는 모든 시스템의 비만 상태”라고 지적하였다.<sup>3)</sup> 정보, 기술, 문화, 경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사회에 만연하고 팽창해 있는 상태이다. 동시에 넘쳐날 정도로 풍요로운 물질사회에서 과연 인간은 이 물질적 풍요를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물질 과잉 사회에서 사물은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그 안에서 결국 인간은 그 본질을 진정으로 향유하지 못한 채 소외되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제대로 사유하지 못해 그것들을 흘러보내게 된다. 사물과 개인의 관계성이 점차 흐려지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사물과의 관계성은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흐릿해지는 현상과 같아지며, 이는 존재와 행위에 대한 의미 또한 잃어버리기 쉽다. 한마디로 사물의 존재에 수동적으로 압도되고 매몰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근대-현대미술에 이르러서 일상의 사물에 대한 관심이 짙어진 경향 또한 위와 같은 물질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음을 반증한다.

본 연구는 일상적 장면의 사물화를 통해 연구자 개인이 일상에서 사물과 관계를

---

1) (2018). “일상의 철학”, 세창출판, p.4.  
2) 장석주 (2013). “철학자의 사물들”, 동녘, p.8.  
3) 한병철 (2012).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 p.17.

다지는 새로운 관점을 조형적 언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일상적 장면들이 자아내는 ‘지금, 여기’의 현존성과 아우라와 힘을 연구하고 장면들을 통해 생성되는 감정과 정서를 시각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잃어버리기 쉬운 일상의 가치와 사물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일상을 둘러싼 사물의 의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상적 장면들에서 조형성을 도출하고 도자조형물로서 새로운 사물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며, 그것들의 구성을 목표로 사물과 연구자의 관계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상의 사물과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에 있어서는 본 연구자이며 본인의 일상과 주위 사물을 주제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의 장면들을 수집하여 일상을 둘러싼 사물들의 형상을 포착한다.

둘째, 일상적 장면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성을 분석하고 조형적 요소를 드로잉을 통해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형상을 토대로 한 성형 방법을 제시하며 색, 형태, 질감을 통해 주제 표현을 연구한다.

넷째, 개별 오브제들이 자아내는 실루엣들을 구성하여 새로운 사물로서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일상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일상의 개념과 특징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뜻한다. 한자의 ‘日常’은 원래 태양이 매일 뜨고 지는 그 항상성을 의미했다. 유의어인 ‘평생’이라든가 ‘부단’과 마찬가지로 반복성, 연속성, 항상성이 함의되어 있다.<sup>4)</sup>

일상의 성격적 특징은 필연성, 유사성, 반복성, 평범성, 일시성의 특성이 있다.

가) 필연성: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일과들이 있다. 먹고 마시고 사람과 더불어 관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마다 양상은 다르나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삶의 조건들이 있으므로 나타나는 성격이다.

나) 유사성: 필연성에서 기인한 일상의 성격적 특징으로서 일상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문화적, 경제적인 차이에 있어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상을 지내는 양식적인 면에서는 인간으로서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

다) 반복성: 일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일상은 매일의 반복이다. 매일 반복되는 행위와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의 형식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반복성은 타성을 낳고 이는 일상적인 과업의 처리에 효율성을 주지만 이러한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양산하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

라) 평범성: 일상의 반복과 유사성을 통해 삶의 질서가 생겨난다. 질서는 삶의 양식을 만들고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패턴을 만들게 된다. 일상의 질서는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며 세상에 종속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사회에 종속된 일반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평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마) 일시성: 인간은 시간에 의해 또는 망각에 의해 매 순간을 흘려보내고 지나치게 된다. 일상 또한 반복되고 연속되는 와중에 정체되어 있는듯 하지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지나가기 마련이다.<sup>5)</sup>

위와 같이 인간이 점유하는 신체라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식주를 위한 활동을 필연적, 필수적으로 행해야 한다. 인간의 의식주 활동은 문화적 현상이나 양식에

4) 기요카즈(2011), "현상학사전", 도서출판비, p.402

5) 강영안 (2018). "일상의 철학", 세창출판, pp.56~66.

앞서 동물적인 생존 감각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종 안에서 유사성을 띠게 된다. 같은 이유로 매일 생존을 위한 활동이 반복되어야 하는 반복성을 가지며 유한한 삶의 시간에 의해 일시적이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는 체험과 생활이 끊임없이 상호 관계를 맺고 전환하는 것이 일상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았다. 즉, 일상은 개인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일상은 반복되지만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경험의 중첩이며 삶의 기반이다.

## 2) 일상의 현대적 의미

일상성은 반복, 재생산, 루틴(routine), 전통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에 반해 비일상성은 일회성, 생산성, 혁신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성과 속 그 세속화된 모습인 여가와 노동일과 같은 대비도 이것의 한 예이다. 일상과 비일상의 이러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과학, 예술, 종교와 같은 원래는 일상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생각되었던 것에도 일상적인 것이 침입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sup>6)</sup>

일상은 시대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장소 또는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과거 생활상에 비해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현대인에게는 특히나 일상의 형태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지만 일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거대한 줄기이며, 이를 살아가는 개인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시간의 연속이다.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 또한 자리 잡게 되는 점이 현대일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은 일상의 순간을 쉽게 포착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며, 그것을 이미지상으로 쉽게 공유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다양화된 개인의 일상과 개인주의적인 현대인의 경향성이 낳은 문화적 현상이다.

## 3) 일상적 장면의 의미

시각은 정보 획득에 중요한 감각기관으로써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

---

6) 기요카즈(2011), 위의 책

한 역할을 한다. 공간지각은 시각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각 과정에서 습득된 정보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공간에서 어떠한 사물을 본다는 것은 한 장소에 지정된 특정한 물체를 지각하는 것이며, 지각된 물체는 곧 공간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고 의미 있는 구성요소를 지각한 결과이자 공간 전체를 대표하는 장면(Scene)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장면(Scene)은 공간 전체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가장 우선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을 지각한 결과이며, 장면 속에는 지각에 대한 여러 의미가 포함된다. 장면은 인간과 공간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시지각 현상이 유발된 결과이며, 장면에는 공간과 사람, 사물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내재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즉, 장면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공간과 시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주목성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상호작용하는 순간에 대한 인식이다.

막스 베크만(Max Beckmann, 1884~1950)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신비스러운 것을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 그 자체인 것이다. ... 중요한 것은 그들 각각의 이미지, 즉 물체가 갖는 이미지의 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up>8)</sup> 빠르게 지나가는 때 현실의 순간들을 이미지로서 기억하며, 그 내부에 관찰자의 심상과 감정 등을 담아냄으로써 신비감을 가지는 새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는 계속 되풀이되는 매일의 생활이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적나라한 삶을 일상이라 한다. 가장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자 분리될 수 없는 반복되는 시간임에 따분하고 단조롭다 생각되며 그 가치를 잃기 쉽다. 반대로 비일상 즉, 일상을 잠시 벗어나 삶을 환기하는 것은 기존의 일상의 질서를 수정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 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비일상의 연속은 인간에게 과도한 긴장과 피로를 준다.

르페브르는 일상을 다루는 것은 결국 일상성을 생산하는 우리 사회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겉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사실들 속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잡아내고, 그 사실들을 잘 정돈함으로써 이 사회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9)</sup> 삶을 지속하는 흐름을 통해 무수하게 펼쳐지는 일상의 장면들 속에서 작은 차이들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 또는 그 의미를 찾고 재정의하며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의 본질과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7) . (2013). “전시공간에서의 장면에 의한 공간지각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pp.6~7.

8) 이석주. (2008). “일상공간의 회화적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p.5.

9) 박정자 역.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pp.84~85

## 2. 사물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사물의 개념과 특징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공간을 점유하는 물리적 실체(substance)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물리적 대상으로서 사물을 의미하며, 하이데거(Heidegger, Martin, 1889~1976)는 이러한 자연과학적 사물이 아닌 ‘도구’의 의미로서 사물의 의미를 제한하고 사물과 인간이 갖는 관계성에 주목한 사물의 정의를 내린다.

하이데거의 사물은 즉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그 도구는 또 다른 도구와의 연계망을 가지며 도구가 지향하는 목적성을 보여주며 세계를 구축한다. 그럼에도 도구라는 명칭으로 사물을 정의하지 않는 데에는 사물의 한자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구분이 보다 명확해진다. 사물의 物은 사물의 ‘공간을 점유하는 물리적 실체’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으나, 事는 사건, 일, 사태를 뜻한다. 이는 시간성을 내포하며, 하이데거의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사물로서 관계성의 의미를 내포한다.<sup>10)</sup>

사물은 즉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사물은 공간성과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물과 사물 간의 또는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다.

### 2) 사물과 인식

‘사물들은 항상 사물들으로써 자명하다. 그것은 이미지의 환경이 아니라 물성으로 구현된 그 확실성 속에서 저를 드러낸다. 사물의 실제성은 깊이가 아니라 그 표면의 생생함에서 나오는데 ... 사물은 보이지 않는 깊이가 아니라 그 표면으로 말하니, 사물의 표면이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sup>11)</sup> 사물은 물리적 실체인 존재이다. 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사물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 체험하고 지각하는 관찰자에게서 발생된다.

10) (2015). "사물의 철학", 세종서적, pp.5~7. 참조.

11) 장석주.(2013). "철학자의 사물들", 동녘, pp.6~7.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의 저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물의 양상은 그것의 단순함과 익숙함 때문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 보지 못한다. 항상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이는 눈에 익은 익숙함에 의해 사물에 대한 인식을 놓치는 점을 꼬집는다.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은 ‘나라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초현실주의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데페이즈망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인 시인 로트레아몽(Lautréamont, 1846~1870)의 유명한 시구절 ‘재봉틀과 박쥐, 우산이 해부대 위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듯이 아름다운’에서 잘 나타난다. 즉, 낯익은 물체라도 그것이 놓여 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내어져 이처럼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이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sup>13)</sup> 이러한 사물의 익숙함을 비일상적 상황에 대입하여 사물에 대한 낯섬을 유도한다.

레디메이드와 같이 일상의 오브제를 제시함으로써 물리적 사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고와 관점을 담은 사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도록 인식하기도 한다.

일상 속에서 인간은 늘 사물과 관계한다. 그 관계가 도구적 사용의 목적성을 가지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감각을 통해 영위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형성하고 변화하게 되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사물로부터 멀어지는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유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12) .(2001). "유희적 사고에의한 사물의 은유", 석사학위논문, p10.

13) 데페이즈망 [dépaysement]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 3. 일상과 사물에 관련한 작품사례 연구

#### 1) 세잔 Paul Cézanne (1839 - 1906)

세잔은 정물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대해 해석하고 관계성을 탐색한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는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다시점을 한 화면 안에 보여줌으로써 사물을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잔에게 있어서 정물을 그리는 것은 한 방향의 고착된 시각에서의 빛을 그리는 것이 아닌 관찰자가 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모든 장면들을 담아내는 것이 실제 사과를 그리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존재를 탐색하는 현상학적인 접근이자 인간의 사물을 지각하는 감각 심리학적 접근을 회화로 표현하려는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도 1] Paul Cézanne <사과>. 1878.  
oil on canvas, 19x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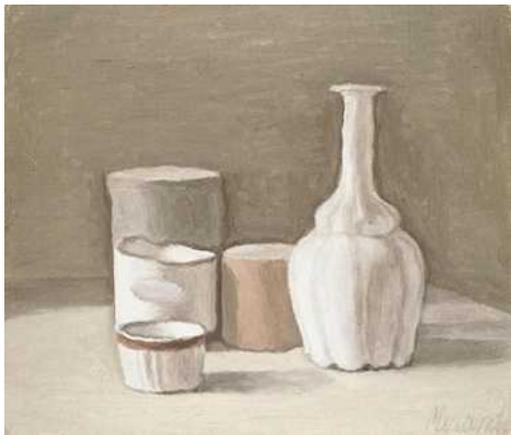
[도 2] Paul Cézanne  
<사과바구니가 있는 정물>. 1895.  
oil on canvas, 65x80cm

#### 2) 조르주 모란디 Giorgio Morandi (1890 - 1964)

‘현실보다 더 초현실적이고 더 추상적인 것은 없다.’ 이탈리아 정물화가 조르주 모란디는 오랜 기간 자신의 아틀리에에 있는 몇 가지 병과 정물들의 미묘한 배열을 통해 정물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정물들의 외적 디테일들을 없애 정물 자체의 형상에 주목하게 되며, 정물의 형상에 대한 관찰이 곧 정물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명상적인 작품을 그려내었다.

모란디는 인간의 눈을 통해 본 일상의 모습이 가장 본질을 보는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사람의 감각을 통해 관계를 맺은 사물이 가장 본질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세잔과 같이 사물의 본질과 지각에 대한 탐구이며 일상과 사물의 관계성에 대한 회화를 잘 드러낸 작품 사례이다.



[도 3] Giorgio Morandi <Natura morta>. 1946. oil on canvas, 35.5x47.5cm



[도 4] Giorgio Morandi <Natura morta>. 1956. oil on canvas, 30.6x40.8cm

### 3) 로즈 와일리 Rose Wylie (1934- )

로즈 와일리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작가이다.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나 축구의 장면을 그리기도 하고 아틀리에의 창밖의 풍경이나 기억의 조각들을 자유분방하게 그려낸다. 그녀의 전시 인터뷰 중 ‘집안의 소품, 정원의 잎사귀, 잡초 등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소한 것의 시각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와 같이 그녀는 일상에서의 소중한 장면들에 주목하고 포착해 평면의 캔버스에 천진난만하고 강렬하게 표현해 낸다. 일상에 대한 애정과 감수성을 유희적이고 본인만의 재치를 담아 시각적으로 표현해 낸 작가이다.



[도 5] Rose Wylie <Six Hullo Girls>. 2017. oil on canvas, 182x33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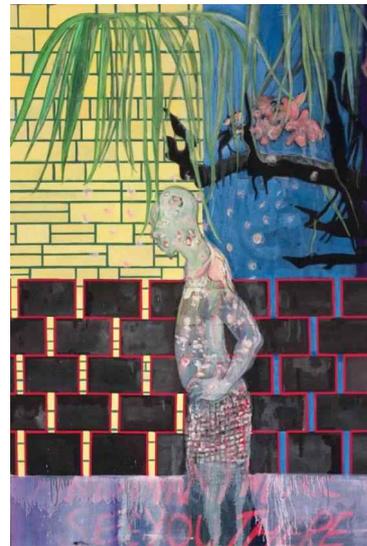
[도 6] Rose Wylie <Interview>. 2012. oil on canvas, 183 x 333 cm

4) 피터 도이그 Peter Doig (1959- )

피터도이그는 스코틀랜드 출신 현대회화 작가이다. 그는 사진을 기반으로 작업을 한다. 더불어 스냅사진, 신문, 엽서 등을 통하여 기억한 장면들을 통하여 풍경화를 그려낸다. 사진을 통한 현실의 장면을 그리지만 흐르는 선과 색채를 통하여 현실을 넘어선 몽환적인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었으며 자신의 정서를 작품에 잘 녹여내었다.



[도 7] Peter Doig  
 <Red Boat (Imaginary Boys)>. 2004.  
 oil on canvas, 199x186.4cm



[도 8] Peter Doig  
 <house of flowers (see you there)>.  
 2007. oil on canvas, 300x200cm

5) 레이첼 화이트리드 Rachel Whiteread (April 20, 1963 ~)

레이첼 화이트리드는 가정적인 공간의 오브제들의 네거티브 공간을 캐스팅해서 만든 조각들을 선보인다. 내부와 외부의 전복된 상태는 사물이 일상 속에서 생겨난 흔적들을 드러내고 사물들의 존재를 시각화한다. 진부하고 간과되기 쉬운 오브제의 부재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존재했었음을 떠올리게 하며, 시적인 반향을 일으키도록 한다. 실용적 물건과 일상적인 장소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능을 부정하고 공간을 딱딱한 덩어리로 만든다. 즉 억압에 의해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sup>14)</sup> 즉, 일상의 공간을 주조함으로써 공간과 시간 그리고 내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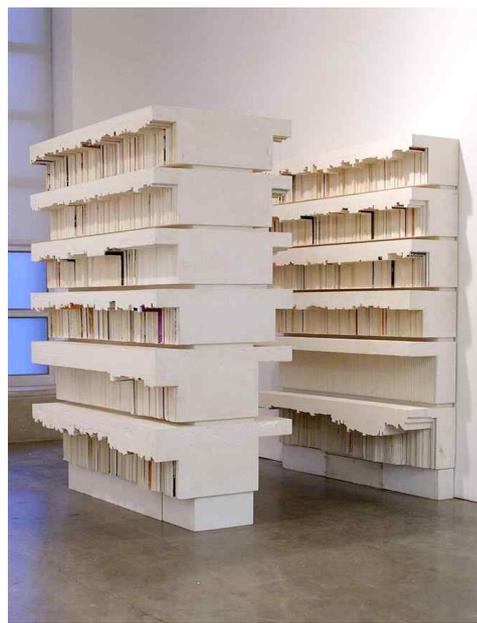
14) Hal, Foster et al, 1900년 이후의 미술사: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배수희 외 역, 세미콜론, 2007, p.637.

추상적 의미들을 사물화를 통해 오브제로 전이를 일으켜 일상의 사물과의 관계성에 대해 관조할 수 있는 장을 제시하였다.



[도 9] Rachel Whiteread  
 <Untitled(Domestic)>. 2002.

석고, 유리섬유, 나무, 675x583.8x245.1cm



[도 10] Rachel Whiteread  
 <Untitled(Library)>. 1999.

석고, 폴리에스티렌, 236.5×176.5×240.5 cm

#### 6) 론 네이글 Ron Nagle (1939-)

론 네이글(Ron Nagle)은 도자를 매체로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 초현실주의를 넘나드는 작업들을 선보이는 도예작가이다. 그는 컵, 향수병, 향로 등을 주제로 하여 일상에서 얻은 모티브들의 물성 또는 실루엣들을 통해 변주하고 변용하여 새로운 조각물로서의 탄생을 보여준다.

빌버크슨은 “평론가 샬롯 모세르가 지적한 것처럼 ‘론 네이글의 모든 작품은 사회사(社會史)를 위한 은유로서 기능한다’ 라고 쓰면서 모든 선택은 네이글이 수년간 개인적으로 모아온 다양한 물질적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즉, 그의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일상에 대한 관찰이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어 고스란히 녹여져 나오게 된다.

15) Ron Nagle : Handsome Drifter



[도 11] Ron Nagle <Kingsford Special>. 2013. mixed media. 18x15x9 cm



[도 12] Ron Nagle <Fiestasiesta>. 2013. mixed media. 9.5x12x7 cm.

예술은 삶의 기록이며 예술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하여 삶을 표현한다. 일상에서 만난 대상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화폭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어떠한 대상을 나름의 감정과 감각으로 대하며, 예술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동기는 직접적인 감각전달 기능과 함께 지적, 내면적인 사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sup>16)</sup>

위의 작품 사례를 통하여 일상의 사물이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변용되고 해석되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사물의 표면에서 그 본질을 탐색하거나, 사물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의 표상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사물들의 존재의 양식을 달리하여 사물과 사람, 또는 사물과 사회의 관계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관점에 따른 사물의 해석과 그 표현양식의 다양성은 개인의 일상에 사물들이 가지는 관계성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의 양분을 제공한다.

16) .(2008). “이미지를 통한 내면의식 연구”, 석사논문연구, p.3.

### Ⅲ. 작품제작 및 해설

#### 1. 작품계획

본 연구자는 부유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며 사람과의 관계성을 상실해 가는 일상적 풍경 속 사물을 인식하였다. 사물과 사람의 관계를 짓는 유희적 방법이자 일상의 사물을 지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물에 둘러싸여 지내는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도자조형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작품의 제작 계획은 다음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일상의 장면을 포착하여 일상 속 사물들에 주목한다.

둘째, 포착한 장면을 기반으로 드로잉을 진행하여 일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실루엣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한 실루엣 라인을 토대로 새로운 사물을 창조하기 위함으로 특성과 조형성을 분석하여 도자 오브제를 제작한다.

넷째, 개별 오브제들의 실루엣과 조형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사물로 인식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2.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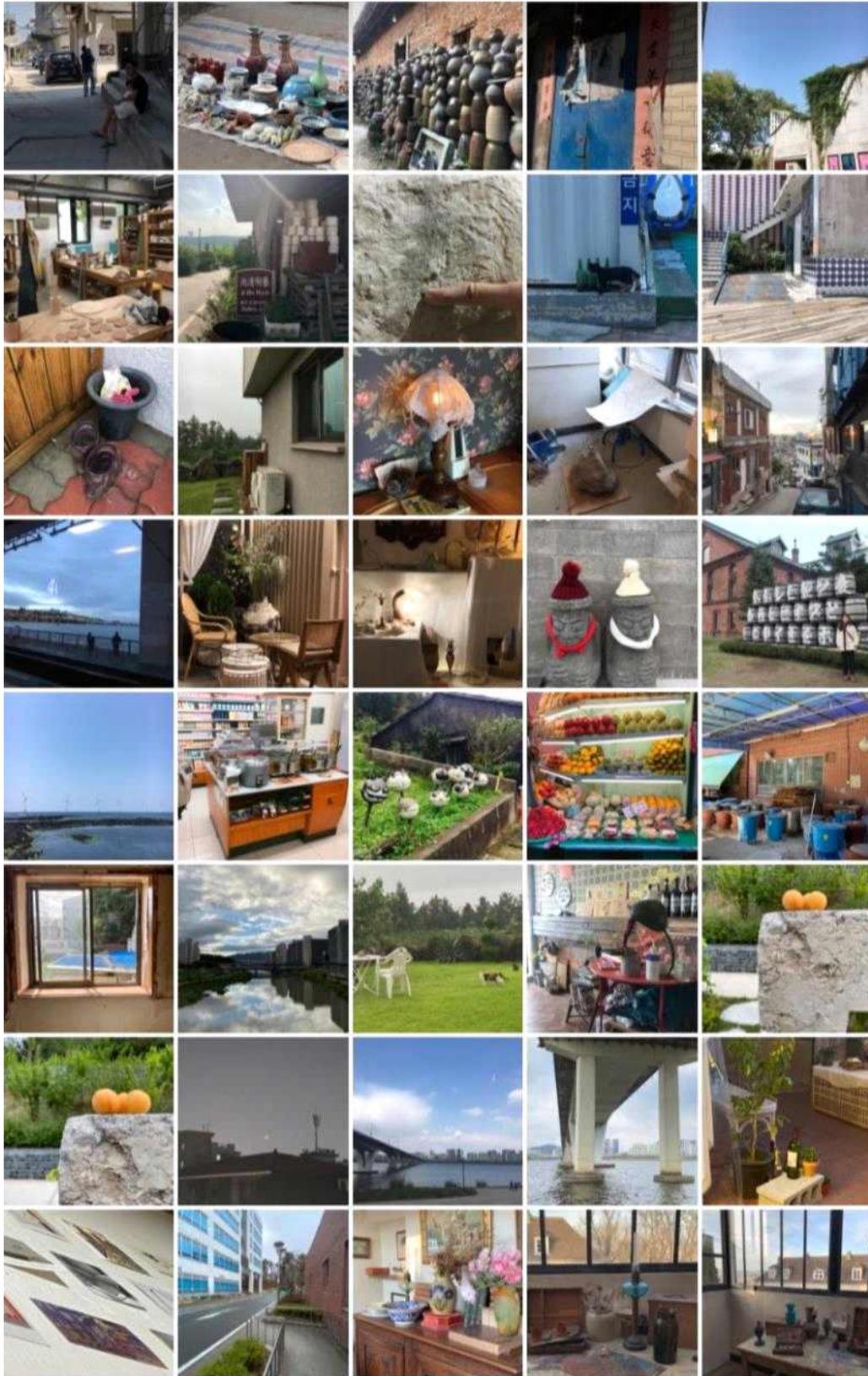
### 1) 수집

본 연구자의 일상의 공간들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수집한다. 매일같이 걸어 다니는 길, 작업실 곳곳, 집안과 옥상에서 바라보는 일상의 장면이다.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곤 하던 곳을 중점으로 의식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시선이 많이 머무르던 곳이 주로 수집된 장면들이며, 응시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자주 감각하는 사물들이었다.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스냅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흑백으로 전환하여 사물의 실루엣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보정한다.

이미지의 세계는 항상 현재로 머물러 있고, 믿음의 양태 속에서 과거나 미래, 혹은 가능성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미지의 세계는 중립화된 세계이며, 세계의 속성 자체를 잃어버린 세계이다. 우리와 사물 사이에 이미지를 개입시키는 방식은 세계에 대한 시각으로부터 사물을 탈취하는 효과를 갖는다.<sup>17)</sup> 이미지의 수집은 이처럼 본 세계를 덮는 한 겹의 가상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제작 과정에서 이미지를 통해 일상을 포착함과 동시에 이를 중립의 세계로 고착화하고자 하였다.

---

17) .(2006). “흔적의 미학”, 미술문화



[도 13] 사진을 통한 일상의 수집

## 2) 드로잉

루돌프 아른하임 (Rudolf Arnheim, July 15, 1904 - June 9, 2007)은 ‘본다’ 는 것은 시각과 지각의 감각영역만이 아닌 보는 것과 사고하는 것 즉, 지각과 추론의 작용과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보았다.

아른하임에 따른 ‘보는 것’ 이란 주체의 경험과 지성, 조형의식에 따라 선택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라고 보았으며, 인간의 심리 주체가 시각 활동에 의해 사물을 지각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8)</sup> 이처럼 드로잉을 통하여 수집된 일상의 장면에서 주체에 의해 주목되는 한 점을 설정하여 경계를 탐색하고, 사물이 주는 감상에 따른 감정의 선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감정의 선은 포착된 당시의 일상에 대한 감정과 선을 이어나가고 있는 현재의 감정에 대한 중첩임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선을 통하여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진동하는 선으로 이어나가거나 사물과 주체인 나의 감정을 따라 새로이 관계성을 잇는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상의 장면 속 사물에 대한 주관적 조형성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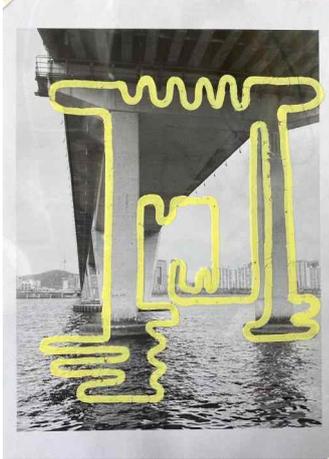
드로잉의 과정에 있어서는 사진들을 인쇄하여 OHP 필름을 사진 위에 덧대어 드로잉을 진행한다. 사물이 자아내는 실루엣과 새로 덧씌워지는 라인들이 자유롭게 미끄러지며 융합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백묵을 사용하여 유동적인 실루엣의 표현에 집중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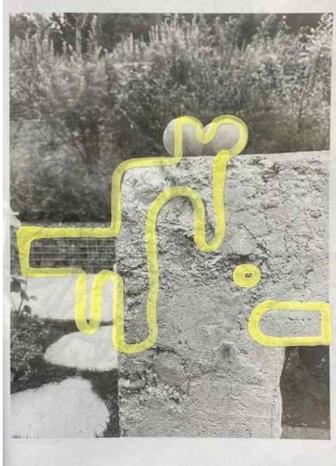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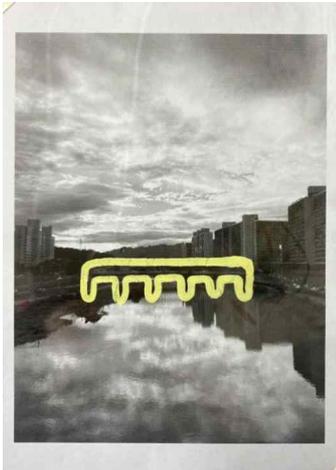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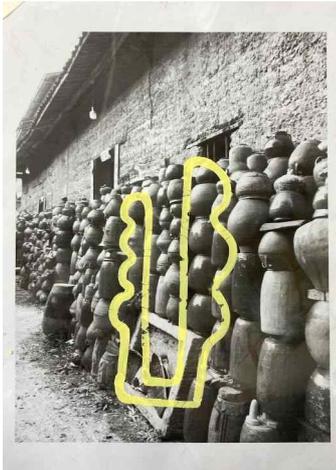
다음의 도표는 일상에서 포착한 장면에 대한 시선의 흐름을 시각화한 드로잉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상의 장면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지각과 주관을 통해 소화된 상태를 일컫는 선과 형상이 도출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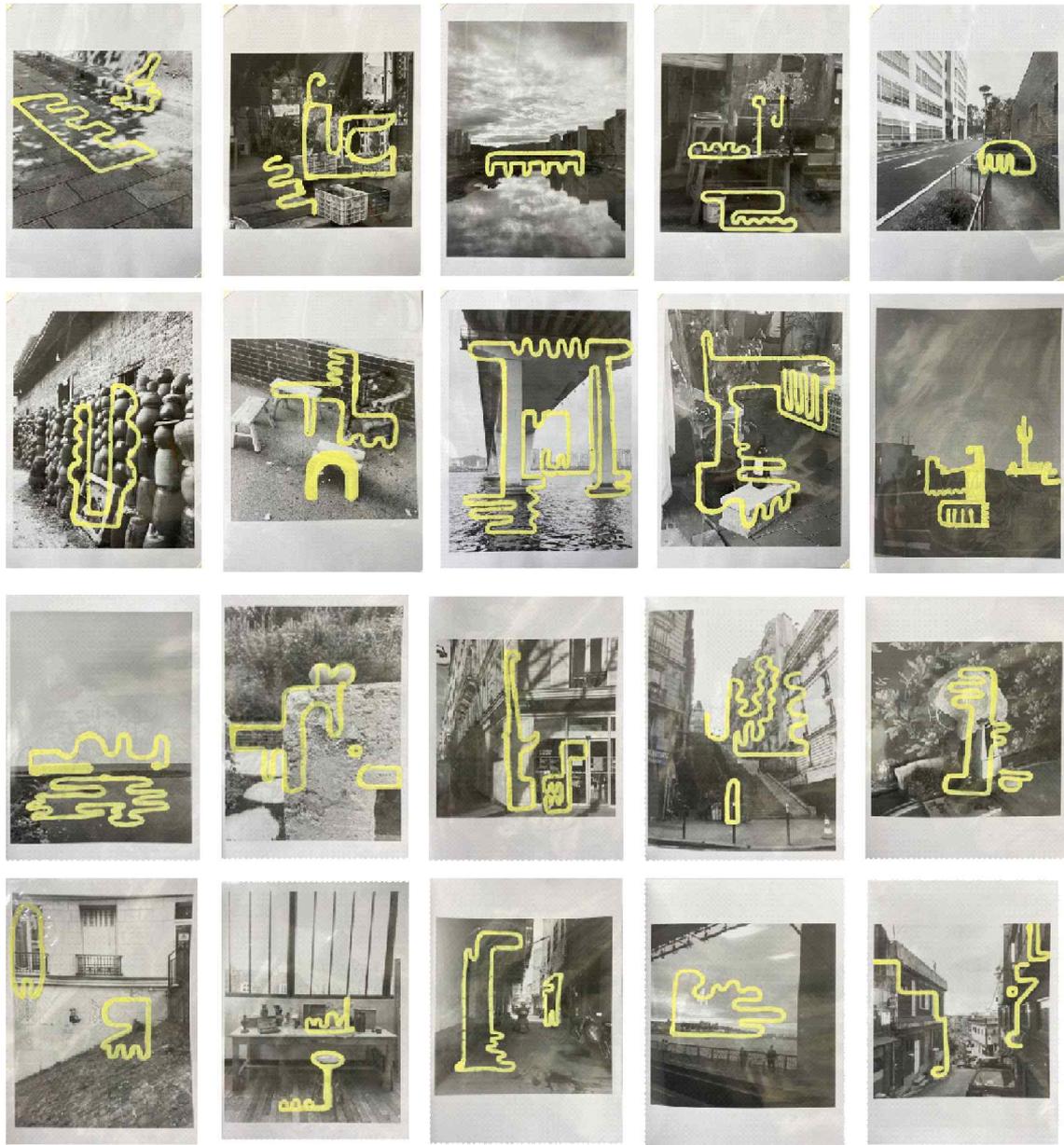
18) 아른하임, 김춘일 옮김. (2003).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pp.114-120

<표 1> 드로잉 전개

포착한 장면	전개	드로잉
	<p>작업실을 나서는 통로에 설치된 구조물과 조경의 장면</p> <p>수직과 수평으로 뻗은 철제 구조물과 무성하게 자라 둥근 모양으로 가지치기 된 모습을 주목하였다.</p>	
	<p>다리 아래에서 올려다본 일상의 풍경이다.</p> <p>물이 흐르는 형상과 다리를 지지하는 기둥들의 곧은 형태에 주목하였으며, 도심의 아파트가 이루어내는 네거티브의 실루엣까지 아우르는 선을 이어내었다.</p>	
	<p>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인도변의 장면이다. 보도블록이 질서정연하게 놓인 직선들과 자유롭게 드리워진 그림자의 곡선적 형태에 주목하였다.</p>	

	<p>산책로에 조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살구가 놓인 장면이다.</p> <p>거친 콘크리트와 살구, 반듯하게 쌓여진 벽돌 화단의 대비로 인한 주목성에 집중하였다. 균열과 텍스처의 대비를 이루는 요소들을 선으로 묶어내었다.</p>	
	<p>교각으로 이어진 산책로 위에서 바라본 장면</p> <p>하늘과 강에 비치는 장면이 대비되는 가운데 위치한 다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하늘과 강을 연결하는 수직 수평의 교차로와 같은 장면, 교각의 실루엣을 도려내었다.</p>	
	<p>항아리가 잔뜩 쌓아올려진 장면이다.</p> <p>항아리의 굴곡진 형태들과 수직으로 쌓아올려진 힘을 형상화하였다.</p>	

일상에서 포착한 장면들에서 주목하는 요소들의 실루엣 또는 감상을 통해 감상의 실루엣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라인들이 전하는 의미는 당시의 감정과 시선을 끌 수 있었던 주목성이다. 사물과 주체의 감각이 교류했던 순간에 대한 기록이다. 이 순간은 일상의 ‘지금, 여기’에서 발했던 아우라의 실루엣으로 해석된다.



[도 14] 드로잉

종이, 필름지, 백묵, 21.0x19.7cm

### 3) 제작

#### (1) 성형

도출된 실루엣을 바탕으로 정면성을 강조하여 실루엣이 강조되도록 조형작업을 진행한다. 정면성의 강조와 동시에 오브제 간의 레이아웃을 위하여 납작한 형상을 만든다. 성형은 코일링으로 형상을 구축하였다.



[도 15] 성형



[도 16] 성형

일상의 다양한 양태와 반복성, 중첩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형태에 따른 다양한 질감 표현을 구상하였다. 성형과정에서 남은 손자국 텍스처를 그대로 두거나 대패 날로 갈아내어 사모트와 함께 굵힌 혼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소지에 샤모트를 추가하여 소지 자체에 텍스처를 더하도록 하였다.



[도 17] 텍스처 1



[도 18] 텍스처 2



[도 19] 텍스처 3

## (2) 색 유약/시유

요하네스 이텐 (Johannes Itten, 1888~1967)의 색채론에서 색채 예술은 화가의 경험과 직관에 바탕을 둔다. 형과 색의 의미에 의한 내면적 정신적 경험을 표현하는 색채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고 빛나는 에너지이며, 이것의 효과는 시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경험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sup>19)</sup> 이를 통해 경험과 주관에 의한 형태에 대한 색의 의미 부여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형태가 우선적으로 생성된 만큼 형태에서 오는 색의 설정에 주목하였다. 이는 일상이 주는 동일할 수 없는 삶의 중첩임을 각각의 색상으로 대입하여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일상 속 감정과 심상을 색과 질감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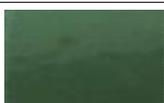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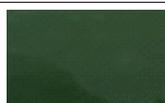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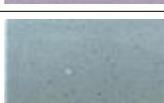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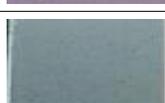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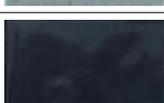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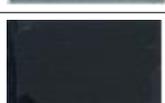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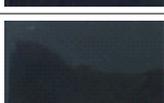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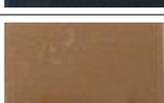
유백유에 대한 안료의 비율로 색 유약 데이터를 작성하였으며, 클레이어 고화도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소성 온도는 1250℃ 소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손자국으로 마티에르가 생성된 형태에 대해서는 마티에르를 강조하기 위하여 광택이 있는 유백유를 활용하였으며, 텍스처가 적은 형태에 대해서는 색상이 강조된 백매트 색 유약을 시유하여 형태와 색을 강조하였다.

---

19) .(2012). “바우하우스 조형이론을 통한 창의적 디자인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pp.7~10.

<표 2> 색상별 안료 함유량에 따른 발색 테스트

안료 함유량 (유백유)				
	0.5%	1%	3%	6%
RED				
ORANGE				
YELLOW				
L-GREEN				
GREEN				
D-GREEN				
SKY				
BLUE				
GRAY				
LILAC				
L-GRAY				
D-BROWN				
BLACK				
BROWN				

### (3) 시유 및 소성

850℃ 1차 소성 후 색 유약으로 스프레이 시유를 진행한다. 시유는 발색을 위하여 소지 색이 비치지 않을 정도로 5-6회 두껍게 시유한다. 사용된 유약은 백매트유, 유백유로 색 안료를 혼합하여 발색도를 높였으며, 소지 본연의 색과 텍스처를 남기기 위하여 무유 소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차 소성은 1250℃로 산화 소성하였다.

〈표 3〉 소성 과정



### 4) 구성

구성하기에 앞서 제작된 오브제들을 1/10사이즈로 모델링 하여 형태의 구성에 따른 실루엣 변화를 살펴보았다. 균집된 오브제들이 다양한 실루엣을 자아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사물화된 장면들은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과 각각의 사념과 감정이 이루어낸 형상들이다. 따라서 결코 동일하지 않은 형태와 색상들의 오브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오브제들을 한 시간과 공간 안에 구성하여 초현실적인 나열로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색상의 대비, 크기의 대비를 바탕으로 구성된 장면들을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평면성을 가진 오브제들의 중첩을 통하여 실루엣의 변화와 아웃라인을 강조하였다.

<표 4> 모델링을 통한 구성



### 3. 작품해설

아우라(aura)란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 1892~1940)의 예술 이론으로, 예술작품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뜻한다.

아우라란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 또는 독특한 분위기를 말한다. '지금, 여기'라는 찰나에 한정된 현상으로서 그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sup>20)</sup>

본 연구는 사물이 가지는 영적인 기운을 말하는 아우라를 사물로 환원하는 과정은 일상이라는 시공간의 상태를 연구자의 감각기관과 사유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물리적 형태로 양산하는 과정이다. 이는 일상에 대한 하나의 기록이자 기념물의 제작 과정이다. 이를 통해 사물과 관계하는 '지금 여기'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시각적 유희의 시간과 본 연구자를 통해 감각된 사물들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드로잉을 통해서 드러나는 형상에서 주관적이고 고유의 패턴과 같은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포착된 장면에 대한 주목되는 요소들에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직선 또는 곡선의 표현들이 주관적인 곡률과 본인만의 선을 그어내는 것 같다. 이러한 패턴과 같은 실루엣은 본인만의 고유한 형태와 조형적 언어를 상징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사물화하는 것이 사물과 관계했던 증거와 기념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드로잉에서 조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회화 표현에 있어서 모티브를 단순화해서 윤곽선을 강조해 그리는 클루아조니즘 (cloisonnisme)<sup>21)</sup> 기법과 같이 진행된다. 사물이 가지는 아우라와 일상적 장면에 대한 감정의 선을 단순화하여 실루엣을 도출하였다. 변화무쌍한 일상적 장면과 그에 대한 감정의 선은 곡선과 직선의 흐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공간 안에 새롭게 구성된 사물로서 존재하도록 부피를 가진 선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형태에 대하여 각각의 고유의 색을 부여하여 색을 지닌 형태들의 구성을 통하여 배색을 하였다. 서로 다른 색의 중첩이 가져오는 감정의 전달 효과는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끌어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색채와 활용과 더불어 질감을 활용하여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sup>22)</sup> 활용된 색은

20) 벤야민, 최성만 옮김. (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p.50.

21) 클루아조니즘 cloisonnisme : 회화표현에 있어서 모티브를 단순화해서 파악, 그 윤곽선을 강조해서 그리는 수법.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고채도의 중간색(2차 색<sup>23)</sup>)이 다수를 이룬다. 이는 원색의 중간색이 주는 중립적이면서도 신비함, 부드러움, 색채감성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일상의 이미지와 연구자의 감정의 대비를 통해 생성된 중간 세계의 신비함과 감정의 역동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질감의 대비, 색채의 조화를 통해 구성된 사물들을 통하여 다채로운 실루엣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사물들이 자아낸 공간을 거닐며 일상에 대한 사유와 감정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였다.

---

22) 옥. (2017). “상반된 감정의 색채이미지와 회화적 표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p.81.

23) 먼셀 색상환에서는 1차색인 빨강·노랑·녹색·파랑·보라 사이에 위치한 5색, 주황(YR)·연두(GY)·청록(BG)·남색(PB)·자주(RP)를, 오스트발트 표색계에서는 기본색인 빨강(R)·군청(UB)·초록(SG)·노랑(Y) 사이에 위치한 주황(O)·보라(P)·청록(T)·연두(LG)를 중간색이라 한다.



[작품 1] Objects composition 1

Stone Ware, Glazed, (좌)46x8x50cm, (우)53x10x61cm, (앞)35x6x11cm, 2020

사물들의 구성 시리즈는 각각의 일상의 장면들 속에서 탄생된 개별의 사물들을 토대로 새로운 위치와 구성을 찾아간다. 본 작품은 녹색과 무채색에 가까운 연녹색 그리고 흰색을 주조색으로 한 구성이다. 사물화된 조형물 각각은 이처럼 조형적 언어로서 활용되며, 일상과 본인의 내면이 관계하며 일궈낸 중간 차원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작품 2] Objects composition 2

Stone Ware, Glazed, (좌)7.5x5x42cm, (우)33x8x18cm, 2020

위 작품의 모티브가 된 일상의 장면은 각각 서울 도심 풍경과 책상 위의 사물이 놓인 형상의 실루엣이다. 동시에 존재하기 어려운 두 실루엣들의 초현실적 구성이 조화되고 어우러지며 더 나아가 새로운 선을 자아낸다. 색상을 통해 대비되는 상황과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사유할 수 있는 구성을 제안하였다.



[작품 3] Objects composition 3

Stone Ware, Glazed, (좌)19.5x4.5x24cm, (우)34x3.5x9cm, (뒤)8x5.5x38cm, 2020.

유약을 통한 질감의 표현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효과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마티에르가 크게 있는 형태에는 유광 처리를 하여 빛에 의한 표면이 강조되도록 하였으며, 소지 자체의 텍스처를 보이게 하던 데에는 무유를 통해 소지 자체를 강조하였다. 아웃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매트한 표면을 통해서 실루엣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위 작품은 유약의 표면 효과의 대비가 드러나도록 구성되었으며, 동일할 수 없는 일상에 대한 각각의 고유한 감상을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4] Objects composition 4

Stone Ware, Glazed, (좌)39x11x98cm, (우)96x15x40cm, 2020.

본 형상들은 일상적 장면이 자아내는 찰나의 순간의 감상을 담은 형상이다. 이 형상의 표면을 이루는 질감은 일시적인 아우라의 순간에 비하여 흙가래를 쌓아 올리고 건조와 소성에 이르는 다소 긴 시간과의 대비를 보여준다. 쌓아 올려지는 마티에르를 통하여 시간성과 도자 매체가 주는 물성적 특성을 보여주며 사물과 본인의 관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5] Objects composition 5

Stone Ware, Glazed, (좌)42x8x40cm, (우)72x15x40cm, (앞)32x12x18cm, 2020

구성에 있어서 사물 자체의 실루엣과 동시에 네거티브의 실루엣 또한 중요한 조형 요소로서 바라보았다. 곡선과 직선이 이루는 실루엣은 비슷한 듯 곡률과 두께가 모두 다르게 형성된다. 또한 유사 톤의 색상의 배색을 통해 안정감을 주는 배색의 구성을 하였다. 이 대비와 조화는 일상의 반복성과 평범성이 주는 안정적 감정에 대한 표현이다.



[작품 6] Objects composition 6

Stone Ware, Glazed, (앞)35x20x70cm, (뒤)132x20x38cm, 2020

앞의 오브제는 컵들의 커커이 쌓인 형상을 은빛의 곡선을 가진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뒤의 오브제는 흐르는 내천 위를 가로지르는 교각의 형상에서 비롯되었다. 흐르는 녹빛 물결과 다리가 물에 비치는 형상이 자아내는 곡선들과 당시의 맑은 하늘 빛은 담은 형태가 되었다. 일상의 장면은 이처럼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들을 담아내는 형상들을 제공하며, 사물화된 일상의 장면들은 일상의 순간에 대한 감각의 산물이자 기념물이다.



[작품 7] Objects composition 7

Stone Ware, Glazed. (좌)46x9x56cm,(우)42x15x106cm, 2020



[작품 8] Objects composition 8

Stone Ware, Glazed. (좌)39x8.5x12.5cm,(우)13x4x23.5cm,(뒤)36x10x68cm, 2020



[작품 9] Objects composition 9  
Stone Ware, Glazed.(좌)56x14x134cm,(우)64x10x33.5cm, 2020



[작품 10] Objects composition 10  
Stone Ware, Glazed. (좌)36x14x89cm,(우)68x14x40cm, 2020



[작품 11] Objects composition 11

Stone Ware, Glazed, (좌)20x5x14cm, (우)17x3.5x17cm, (앞)17x2.5x4cm, 2021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환원되는 사물화된 일상의 장면을 통해 정제된 상태의 감상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사물들의 재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양상의 일상의 모습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2] Objects composition 12

Stone Ware, Glazed, (좌)5x4.5x15cm, (우)4x2.5x12.5cm, (앞)8x3x7cm, 2021



[작품 13] Objects composition 13

Stone Ware, Glazed, (좌)7x3x18cm, (우)17x4.5x21cm, 2021

전체적으로 사물들의 앞뒤의 폭을 좁게 하여 납작한 형상을 가진다. 이는 중첩된 구성을 통해 바라본 실루엣에 대비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열된 상태의 하나 하나의 오브제들의 실루엣의 표현에 효과적이다. 위와 같은 유사한 형태와 색상의 대비를 일직선상의 나열을 통해서 각각의 형상을 드러내었다.



[작품 14] Objects composition 14  
Stone Ware, Glazed, (좌)15x3.5x15cm, (우)11x4x21.5cm, 2021



[작품 15] Objects composition 15  
Stone Ware, Glazed, (좌)11x3x8cm, (우)18x2x3cm, 2021

## Neo Still life

‘Neo Still life’는 새로운, 신(新)을 의미하는 ‘Neo’와 정물화를 일컫는 ‘Still life’를 조합한 전시명이다. 이는 일상적 장면에서 실루엣을 도출하고 새로운 사물들로 환원하는 일련의 과정이 풍경화를 그려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각각의 새로운 사물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게 되었고, 이는 누군가에게 정물화로 담아내고자 하는 시선이 담긴 사물로 보이도록 하였다.

수집한 일상의 장면과 그에 대한 감상이 담긴 드로잉을 함께 아카이빙 하였으며, 동시에 작품 사이사이를 거닐며 관객의 위치에 따른 실루엣의 변화를 체감해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였다.

본 연구주제인 일상적 장면의 사물화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사물화 된 오브제들은 일상의 순간들에 대한 기념물이자 일상의 장면에 대한 본인이 감각하고 소화해 낸 새로운 물질을 입은 덩어리이다. ‘물질과잉’이라는 단어는 도시생활을 접하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뜻을 체감하였다. 생활공간이 되는 방과 작업실, 잠시라도 머무는 도시속 매순간의 공간들은 과잉을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이 순간들을 소화해 내고 나름의 질서로 정리하여 이 과잉된 사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본인만의 새로운 공간들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제된 주관성과 감정의 물리적 실체를 생성해 내었으며, 구성을 통하여 내면의 다양한 삶에 대한 관점과 감정들을 여러 모습으로 비추어 보고자 하였다.



[전시 전경]

## IV. 결 론

일상의 사물이 개인에게 필연적으로 경험의 순간들을 제공하고 관계하게 되며, 한 사람의 정서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현대의 물질 과잉 시대에는 이러한 일상의 사물이 주는 의미와 풍요를 상실해 가며, 개인의 행위와 주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일상의 사물과 관계 짓는 방식에 대한 조형적 제안이자, 연구자 본인의 일상에 대한 사유와 관점을 사물화를 통해 제시하였다.

첫째, 일상적 장면과 사물의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일상의 한 개인에게 주는 영향과 사물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상에서 수집한 장면이 자아내는 감정의 실루엣을 드로잉 하며 일상의 사물들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이를 조형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성형과정에서 발생하는 텍스처와 다양한 유약 색상을 드로잉을 통해 도출된 형태에 입혀냄으로써 시간성의 대비와 변화하는 감정의 양상을 시각화하였다.

넷째, 조형물들의 구성이 관찰자의 시점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실루엣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물과 관계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적 장면과 사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일상의 장면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방식의 다양성을 고찰하며, 본 연구자의 관점을 도자라는 매체를 통해 사물로서 환원된 조형언어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자 조형 또한 하나의 사물이라는 관점에서 일상의 사물이 재정의된 사물을 잉태하는 과정을 가시화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이 일상의 사물에 대한 관조와 감상은 조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형적 요소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상의 사물과의 관계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제시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1] 강영안.(2018). “일상의 철학”, 세창출판
- [2]       역.(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 [3] 박평중.(2006). “흔적의 미학”, 미술문화
- [4] 장석주.(2013). “철학자의 사물들”, 동녘
- [5] 한병철.(2012).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
- [6] 함돈균.(2015). “사물의 철학”, 세종서적
- [7]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길
- [8]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옮김.(2003).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 [9] 마르코 메네구초.(2010). “대중성과 다양성의 예술”, 마로니에북스.
- [10] 실비아 보르게시.(2009). “호퍼: 현대인의 고독한 자화상”, 마로니에북스.
- [11] 와시다 기요카즈.(2011). “현상학사전”, 도서출판비
- [12] Hal, Foster et al(2007). 『1900년 이후의 미술사: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배수희 외 역, 세미콜론
- [13] Lawrence Rinder.(2020). “Ron Nalge: Handsome Drift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rt Museum

### 논문

- [14] 김윤경.(2008). “이미지를 통한 내면의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연구.
- [15] 김윤하.(2019). “일상의 노이즈로서 바라본 잉여 오브제와 버려진 흔적에 대한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연구.
- [16] 김한나.(2013). “전시공간에서의 장면에 의한 공간지각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박정근.(2008).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한 작품 연구 : 색화장토의 다층적 응용 기법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논문연구.
- [18] 신 옥.(2017). “상반된 감정의 색채이미지와 회화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연구.
- [19] 이석주.(2008). “일상공간의 회화적 표현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이하정.(2001). “유희적 사고에 의한 사물의 은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임우현.(2012). “바우하우스 조형이론을 통한 창의적 디자인 교육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정혜인.(2014). “커뮤니케이션 과잉 사회에서의 내적 결핍에 대한 시각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2015). “일상에서 조우( 遇)한 풍경의 심상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연구.

#### 웹사이트

- [2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25]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on Ceramics of Objectification of Daily Scenes

Park, Jin Seon

(Supervisor Lee, Myung Ah)

Dept. of Ceramic Ar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ngs are useful tools for effectively handling matters in human life and have a profound impact on human experience and percep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humans through senses. However, in a society overflowing with materials things are tarnished in meaning and value, and at the same time, humans do not truly enjoy the essence of things, which leads to the weaken relationship between things and individuals.

This study tried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ings in everyday life through an abstract language from a new perspective by giving shape to everyday scenes captured in two dimension. Besides, it tried to study presentness of everyday scenes and the power of aura, and to visualize the emotions and feelings engendered by the scenes. Through this process, the researcher tried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wteen the value of daily life and things and discover the significance of things surrounding daily life.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we confirm that humans are always the ones who form human emotions through interaction with things through general reflection of everyday life and things.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work, we found examples of figurative representation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everyday objects.

The production and explanation of the work was described by classifying it into a work plan, a production process, and a explanation of work. Based on the work plan, the process of production described the capture of everyday scenes and the development of forms through drawing, and the use of clay and glaze. The

explanation of the work describes the significanc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research process.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everyday scenes and objects, the researcher's viewpoint on everyday scenes was intended to be presented as the medium of pottery. Ceramic sculpture visualized the process of everyday objects bringing redefined objects into being. Through this, an individual's appreciation of everyday objects implies the possibility of it being used in a formative way, and a series of processes for deriving formative elements is thought to be meaningful as one of various methodologies that give meaning to everyday objects and observers.